

頤齋 黃胤錫의 天文 관찰과 시적 含有*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학문의 博通性和 관찰 정신
3. 天文 觀察의 시적 含有
 - 3.1 천문 運行의 시적 기록화
 - 3.2 천문 現象에 대한 인식과 대응
4. 시적 含有의 의미와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古來로 자연과 함께 해온 인간은 천문 우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양 및 크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떠 있는 日月은 어떠한가, 행성들은 어떻게 도는가? 등의 문제까지 많은 것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바탕이 된 오

늘날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천문학자의 몫이 되겠지만, 전통시대 형이상학의 논리로 바라본 천문 우주에 대한 문제는 유학자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성리학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易學에 관심을 가진 몇몇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의 문제와 아울러 자연 사물과 우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내보였다. 權近, 鄭麟趾, 金堉, 南九萬, 徐命膺·浩修 부자와 南秉哲·秉吉 형제 등은 천문·역법과 관련된 관직에 있으면서 알려진 이들이고, 재야에 있거나 말직에 있으면서 천문 우주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로는 徐敬德, 張顯光, 李滉, 李穡, 金錫文, 洪大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재야에 있으면서도 천문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근본 이유는 성리학 자체가 格物致知를 존중하는 한편, 陰陽五行類의 자연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黃胤錫(1729~1791)도 微官 말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한평생 동안 천문·역법 등에 주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 논고는 황윤석이 천문·역법에 주력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시문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천문을 관찰한 후 지었음 것으로 생각되는 시문들을 중심으로 그 시적 含有를 살피고, 시적 함유의 의미와 의식의 한계점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현재 남아있는 황윤석의 시문은 대략 1,170題에 1,780여 수 정도이다. 1) 평생 경학에 뜻을 두었던 측면에서 보자면, 적지 않은 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閑情·交遊·鄉愁·敍景 등등의 보통 다른 문인들이 남길 수 있는 시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50-A00021)

** 전북대학교

1) 황윤석 시의 전반적인 경계는 崔三龍의 논문인 「頤齋 黃胤錫의 문학연구」(『頤齋 黃胤錫』, 민음사, 1994, 60~67쪽)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辭 5수, 賦 4수, 樂府 3수, 五絶 113수, 七絶 1,070수, 五律 244수, 七律 244수, 五古 62수, 七古 19수, 雜體 22수 등 이를 모두 합하면, 1,786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을 중심으로 본다면, 황윤석 시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문의 특징적인 측면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의 문집인 『頤齋遺稿』와 『頤齋續稿』 등에 천문 관련 시문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²⁾ 물론 거기에는 천문을 알기 위해 읽었던 선인들의 저서와 관련된 시문들도 다수 있지만, 본 논고는 천문을 관찰 한 후 지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가령, 日·月蝕과 별자리를 관측한 후 지은 시문은 다른 문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면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이 宋憲鎭이 황윤석의 행장에서 언급한 ‘博通精察 眞知實踐’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배운 것을 관찰해보고 실행해보고자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황윤석의 문학연구는 시조 부분에 주로 치중하였고, 崔三龍만이 한시문 전반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또한 황윤석 시문의 特長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³⁾ 황윤석을 흔히 ‘실학자’로 부른다. 이는 그의 학문 전반이 형이상학의 성리학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가까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이 시문에도 드러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황윤석 문학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황윤석 시문의 한 단면을 보여줌으로서 진정 그가 문학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했던가를 구명해보려고 한다.

2. 학문의 博通性和 관찰 정신

황윤석은 영조 5년에 전북 興德縣(지금의 고창군)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平海이고, 자는 永叟이며, 흔히 알려진 호로는 頤齋가 있지만, 西溟山人·雲浦主人·越松外史라고도 불리었다. 선조가 落南한 시기는 고조부 때로 가까운 조상 중에 현달한 이는 없었지만, 숙조부인 龜岩 載重은 農巖 金昌協의 문인으로 학덕을 쌓았고, 부친 晚隱公 壘 또한 그리 높은 벼슬까지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학식만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윤석의 學行은 위의 집안 분위기를 그대로 전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5세에 조모에게서 문자를 배우기 시작한 황윤석은 7세에 이르러 『소학』을 읽었고, 이로부터 『사기』와 사서오경을 두루 보고, 제자백가의 책에 이르러서는 3, 4일 동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읽는가 하면, 4, 5 문장을 잠깐 동안 보고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⁴⁾고 한다. 즉, 어려서부터 博覽強記했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0세에 벌써 문장이 이루어져 이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 세상을 뜨기 이틀 전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60여 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2) 현전하는 황윤석의 문집으로는 『頤齋亂藁』·『頤齋遺稿』·『頤齋續稿』 등이 있다. 『이재난고』가 황윤석이 그의 나이 10세 때부터 시작하여 63세로 생을 마감하기 2일 전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여 쓴 일기체 또는 기사체 형식을 따른 저술이라고 한다면, 『이재유고』와 『이재속고』 등은 『이재난고』속의 내용을 발췌 편집했다고 할 수 있다. 황윤석의 시문은 『이재유고』 1~3권과 『이재속고』 1~2권에 정리되어 있다.

3) 황윤석 문학 연구를 연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유재영,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7집, 한국언어문학회, 1970. 최강현, 「시조 작가로서의 황윤석을 살핌」, 『홍익어문』 9집,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연구」, 『이재 황윤석』, 민음사, 1994. 김명순,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동방한문학』 13집, 동방한문학회, 1997. 손찬식, 「이재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 30집, 어문연구학회, 1998. 전제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19집, 한국시조학회, 2003.

4) 『頤齋續稿』卷14, 年譜 7歲條, 讀小學 自此遍讀史記四書五經 以及於諸子百家 能三四夜不寐 俄頃閱四五板亦能不忘.

이 일기가 현전하는 『頤齋亂藁』이다. 12세에 이르자 경전을 독파하고, 14세에 비로소 ‘이치의 총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理藪에 뜻을 두게 된다. 황윤석이 하루는 滄溪 林泳의 『滄溪集』을 읽었는데, 임영이 벌써 11세에 『書經』에 나오는 ‘菴三百’을 이해했다는 기사를 읽는다. 이를 본 부친이 옛 사람은 11세에 하였는데, 너는 14세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여 이로부터 이수학에 뜻을 두었다⁵⁾고 한다. 곧, 황윤석이 이수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순전히 학문의 폭을 넓혀주려는 부친의 독려와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14세부터 『理藪新編』을 편집하기에 이르는데, 『性理大全』의 조례를 모방하여 근본을 대전에 두되, 여러 서책을 참고하여 巨帙을 완성하였으며, 평생의 정력을 『이수신편』에 모두 쏟았다⁶⁾고 한다.

연보에 의하면, 황윤석은 이때까지도 스승 없이 家學으로만 학문을 연마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18세에 이르자 당시 성리학의 대가요, 玄石 朴世采의 문인인 黎湖 朴弼周에게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미의 편지를 썼으나 올리지 않아 師承 관계가 성사되지 않는다. 21세 때에는 丁垢에게 「論湖洛學心性說得失」에 관한 답서를 쓰는데, 황윤석의 성리학 경지가 어느 수준이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수준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부친은 서울 壯洞의 承旨 金文行을 찾아가 황윤석의 장래에 대하여 의논하는데, 김문행은 “아드님

이 만일 서울에 와서 科擧學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내가 맡아 지도하겠지만, 經學을 공부한다면 再從弟인 美湖 金元行이 있다. 내 마땅히 아드님을 위하여 소개해주겠노라.”고 이른다.⁷⁾ 이전에 이미 과거의 학문이 아닌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었던 황윤석인지라 김문행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을 결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김문행의 말처럼 김원행을 곧바로 찾아뵙지도 않는다. 연보에는 김문행을 찾아뵙은 후에 여기저기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과거학을 할 것인지 성인의 학문을 할 것인지 놓고 마음의 결정을 확고히 하지 못한 듯하다. 아무튼 28세에 부친은 드디어 김원행을 찾아뵙도록 하였고, 황윤석은 김원행에게 「爲學規模」와 「泉塘心性之辨」과 같은 성리학적인 글을 지어 바친다. 그러나 아직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때는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있는 곳을 물어보는 정도의 관계였고, 정식적인 사승 관계는 31세에 동생 黃胄錫과 함께 알현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원행에게서 주로 성리학적 소양을 쌓는다. 특히, 36세에는 石室書院에 있던 김원행을 찾아뵙고, 그곳에서 얼마 정도 머무르면서 여러 선생들을 만나는데, 이는 황윤석 생애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손꼽을 수 있다. 김원행은 김창협(의 양손자요, 陶庵 李縉의 문인으로서 정통 노론계 학통을 이으면서 석실서원에서 당시 많은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고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잘 알려진 인물로는 황윤석을 爲始하여 洪大容, 金履安, 朴胤源, 吳允常, 兪漢紀 등 총 14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황윤석이 앞에서 석실서원에서 여러 선생들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홍대용을 비롯한 김원행의 제자들

5) 『頤齋續稿』卷14, 年譜 14歲條, 讀林滄溪集 見其十一歲解菴三百 晚隱公 以語先生曰 前輩十一已始許 爾今十四 能之否乎 先生自是 留意理藪. 황윤석은 또한 『書經』 「堯傳」 菴三百傳을 읽은 다음 「讀菴三百傳」이라는 시제로 시문까지 남기는데, 기삼백전에 대한 내용이 시문으로까지 남길 정도로 인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頤齋續稿』卷1에 수록된 「讀菴三百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唐堯咨命炳丹青, 欽若淵源迭緯經. 設度周天排列舍, 定時菴日替神莫. 陰陽舒疾生餘閏, 氣朔盈虛見忽零. 直到章元交湊地, 方知聖意最丁寧.’

6) 『頤齋續稿』卷14, 年譜 16歲條, 始編理藪新編 先生於性理大全用功最深 遂做其條例 本諸大全 參以群書附 以已見編成巨帙 平生精力 盡在此書.

7) 『頤齋續稿』卷14, 年譜 22歲條, 金公極稱先生曰 命胤 北來則科文 吾當導之 經學有再從弟漢湖在焉 吾當爲之先容也.

8) 김원행의 석실서원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李珣丘의 논문(「金元行的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 활동」, 『진단학보』 88집, 진단학회, 1999)을 참고할 것.

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윤석은 실제로 이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거세게 몰아치던 서양학을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곳이 석실서원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김원행은 황윤석의 나이 44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둘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황윤석이 학문적 체계를 세우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황윤석은 가학과 김원행에게서 받은 수학 등으로 학문적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30대 중반쯤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자주 이루어진 문인들과의 학문에 대한 논의와 研鑽 등에서 힘입은 바 컸다고 하겠다. 연보에 근거해 34세 이후부터 이루어진 연찬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34세 - 靜慎齋 金時絜을 방문해 『주역』과 星象 · 日食 등을 논하다.

35세 - 다시 김시찬을 만나 음양변화와 筮卦七八의 설을 토론하다.

36세 - ① 木山 李基敬을 방문하여 ‘湖洛心性理氣之辨’을 토론하다. ② 김원행에게 가서 『대학』을 토론하고, 동문 여러 사람들과 『중용』을 강론하다. ③ 장성으로 유배 온 鄭景淳을 만나 『주역』 및 諸家 · 五禮 · 三傳과 漢 · 唐 이래의 문장 등을 논의하다.

37세 - ① 金騫와 『대학』의 明德과 退溪 · 栗谷의 四七理氣와 湖洛諸賢의 ‘心性同異之辨’을 토론하다. ② 安衡圭와 巍巖 李柬의 ‘心性理氣之說’에 관해 토론하다.

38세 - ① 徐命膺과 易象 · 曆學 · 範數 · 字書 · 八線九數의 뜻에 관하여 토론하다. ② 김이안과 太玄經筮法에 관해 토론하다. ③ 鄭東鎭과 陸學의 잘못됨을 토론하다.

39세 - ① 閔百順과 풍수설에 관해 토론하다. ② 정경순과 ‘星曆前知之術’에 관해 토론하다.

40세 - ① 尹昌鼎과 마테오 리치의 地圓說에 관해 토론하다. ② 정지순과 역상 · 律呂와 경제 · 사무에 관해 토론하다. ③ 李某와 일식 · 월식의 이치에 관해 토론하다.

41세 - ① 金庸謙과 「中庸費隱」과 曆範 · 律曆 · 田兵 · 官職 · 算數 · 音樂의 설을 토론하다. ② 李衡喆과 三韓時代의 古跡에 관해 토론하다.

43세 - ① 김용겸과 兵書 · 海防에 관해 토론하다. ② 金聖範, 金鐘純과 曆象 · 數學 · 禮說 · 文章 등을 토론하다.

45세 - 沈定鎭과 經義 · 卜筮 · 율력 · 산수 · 星緯 · 兵陣之法 등을 토론하다.

48세 - 홍대용과 율력 · 象數지설 등을 토론하다.

50세 - ① 趙器鎭과 經禮 · 율력 · 星範 · 經綸 · 制度 등에 관해 토론하다. ② 韓致明과 『사기』의 의심나는 부분을 토론하다. ③ 李家煥과 文章 · 典故 · 字畫 · 聲韻 · 율력 · 籌法 등에 관해 토론하다.

51세 - ① 金光漢과 ‘朱陸學術之異’와 ‘師友處義之道’에 관해 논의하다. ② 李東運, 李敬臣과 이기 · 상수 · 심성 · 예의지설에 관해 강론하다.

60세 - 李得顯이 太極의 先後天渾天儀의 문제와 華東諸賢의 遺事를 물어오자 답하다.

토론의 내용을 보면, 실로 거론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성리학은 기본이고, 성상과 일 · 월식, 역학, 지원설, 역사, 문장, 성운, 율력, 상수 등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야 토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과연 황윤석을 일컬어 천문과 역학의 대가라고 부르는 이유의 근거로서 위의 연찬의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황윤석을 가리켜 서명응은 「행장」에서 ‘박학한 선비’라고 하였고, 영조는 ‘널리 알고 소박하며 알찬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霽軒 沈定鎭은 ‘육경에 근본을 두면서 백가에 통달하였다. 크면서도 뒤섞이지 아니하고 자제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으니 세상에 보기 드문 박학자라고 할 수 있다.’⁹⁾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판단이 진실로 옳음을 알 수 있다.¹⁰⁾

9) 『頤齋續稿』 卷13, 「行狀」, 本六經而達百家 大而不雜 細而不繁 曠世罕有盡知言也.

10) 황윤석의 박학성은 남긴 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후학 金魯洙는 「행장」에서 저서 목록으로서 『理藪』, 『山雷雜考』, 『資知錄』, 『歷代韻語』, 『姓氏韻彙』, 『性理大全』

이상 황윤석 학문의 박학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의 폭을 넓게 본 부친의 인목과 여러 경전을 통한 이해, 많은 문인들과의 연찬으로 인한 학문적 체계화 등을 그 주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 또한 박학성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격물치지를 바탕으로 한 사물의 관찰 정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황윤석의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명종을 해부해보고 기록한 다음의 글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생략) 꽃받침 30일사귀를 만들어 매 잎사귀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을 새겼으니 한 달 30일에 응한 것이다. 그 초하루의 위치에 하나의 작은 둥근 철을 설치했으니 곧 태양이다. 그 밖에는 하나의 둥근 붉은 철을 베풀고 하나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둥근 달이라고 생각하여 돌면서 바라보게 하였다. 문득 초승달, 보름달, 그믐, 초하루 등의 나뉘어 있으며, 상하 초승달은 그 절반이 이지러져서 이지러진 곳은 검고, 이지러지지 않은 곳은 하얗다. 보름달은 전체가 하얗고 둥글며, 그믐과 초하루는 전체가 검으니 해가 구슬을 꿰고 옥을 합쳐 놓은 듯 겹쳐 있다. 사면에는 벽과 같은 네 조각의 네모진 철이 두루 퍼져서 그 연결하여 붙은 곳에 작은 철추를 베풀어 임의대로 단고 열도록 하였다.(생략) 11)

비록 인용한 내용이 자명종의 한 부분을 묘사한 것이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세하여 황윤석이 보았던 자명종을 그림으로도 그럴 정도이

註解, 『九經筭錄』, 『群書訂辨』 각 몇 권, 『象緯指要』 2권, 『輿地勝覽增修起例』 1권, 『皇極經世書四象體用聲音卦數圖解』 1권, 『國朝喪禮補編後本尺圖說』 1권, 『輪鐘記』 1권, 『華音方言字義解』 1권, 『字意混訛辨』 1권, 『海東異蹟補』 1권, 『小學講義』 1권, 『이재난고』 근 백 권, 『문집』 몇 십 권 등 총 300권 정도를 나열하여 황윤석의 박학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직접 알려주었다.

11) 『頤齋遺稿』 卷1, 「自鳴鐘」, 作花萼三十葉 每葉 刻一小窾 應一月三十日 其朔日位 設一小圓鐵 卽太陽也 其外 則施一圓赤鐵 作一小窾 以爲月輪 周而望之 便有弦璽晦朔之分 上下弦月缺其半 缺處黑 不缺處白 璽則全白而圓 朔晦則全黑 與日疊合如合璧 四面周布四片方鐵若壁 其連貼處 施小鐵樞 任意闔關…….

다. 자명종은 현재 생활필수품으로 흔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 중 하나였다. 물론 서양에서 들어와 처음 접한 것이고,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더욱 신기했을 것이다. 연보에 따르면, 황윤석이 자명종을 처음 접했던 나이는 18세였다. 楚山(현재 井邑)에 사는 上舍 李彥復이 어느 날 64년을 주고 자명종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가서 직접 보고, 그것도 부족하여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여 전체를 해부해보기까지 한다.¹²⁾ 당시 황윤석의 가계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샀다면, 실제 생활에 활용했어야 하는데, 내부 모양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함은 서양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격물치지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황윤석은 천문과 역법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관련 책들을 탐독한 이유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천문을 직접 관찰하고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의 소산이 또한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연보 34세조에서 ‘아우와 함께 月重輪을 보았다.’¹³⁾고 하여 천문을 직접 관찰했음을 알려주고 있고, 59세에 쓴 自敘說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려서 글을 읽고 글자를 쓰면서부터 별들을 관찰하여 달을 점치고,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관측하였으며, 불을 밝혀 밤을 새우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¹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관찰과 관측 등이 있었기에 훗날 서양인 測天者들이 별이 해와 달보다 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확한 것

12) 『頤齋續稿』 卷13, 年譜 18歲條, 觀自鳴鐘 國內罕有此鍾 始見於李上舍彥復家 其後以重價購於人 解其全體 察其制度 爲記一篇.

13) 『頤齋續稿』 卷13, 年譜 34歲條, 與季氏 仰見月 有五色重暈顯示.

14) 『頤齋遺稿』 卷11, 「自敘說」, 余少時 讀書寫字 候星占月 登高望遠 明燭達夜 勞心費力.

이라고 확신해마지 않았던 것이다.¹⁵⁾ 현대 물리학에서 이것은 하나의 상식처럼 통하고 있지만, 당시 대개의 사람들이 해와 달이 별보다 크다고 했을 때, 황윤석은 그 반대의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느 정도가 동조하고, 수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히 혁명적인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서부터 실질적으로 천문을 관찰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다음에 전개될 천문 관련 시문들도 이러한 관찰이 바탕이 되어 나온 소산물로 볼 수 있다.

3. 天文 觀察의 시적 含有

3.1 천문 運行의 시적 기록화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황윤석은 글자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 어린 나이 때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 별들과 달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천문을 관찰하는 중에도 그와 관련된 시문 남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 별을 관찰하는 모습을 담은 「觀星」 두 수 중 두 번째 작품의 내용인 ‘자연스러운 빛 기운 허공에 도니, 무슨 일로 다시 밝아지나? 나 가벼이 날아 친히 가서 보고자 하여, 별밤 높은 곳에서 강풍에 몸 구부리네.’¹⁶⁾에서는 황윤석 자신이 직접 시적 화자가 되어 시문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 별이 떠있는 하늘과 그 빛으로

인해 환해진 듯한 모습, 그리고 마치 자신이 가벼운 몸으로 훨훨 날아 碧空을 날아 오를듯함을 ‘剛風’과 같은 도가적 시어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여주었다. ‘강풍’은 곧, 도가에서 이르는 ‘상공에서 부는 바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은 정월 보름날 밤에 달이 나오는 광경을 본 후에 느낀 소회를 담은 첫 번째 시문으로 특히, 頸聯에서 달이 점차 천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인상적이다.

天下元霄月	천하의 높은 하늘에서 뜬 달을
羈人只獨看	나그네 다만 홀로 보네
未嘗鳥飯味	일찍이 새의 밥 맛보지도 아니했는데
且望駱峯端	또 낙봉의 끝 바라보네
蒙氣紅初翳	달은 기운은 붉어져 처음 가리고
高輪白漸寒	높은 바퀴는 희어 점점 차지네
新年何似舊	신년이 어찌 옛과 같으리오?
荒稔在虧團 ¹⁷⁾	흉년과 풍년 이지러지고 둥근데 있다오

달은 천문학에서는 별자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¹⁸⁾ 시적 화자는 현재 객지에 머물던 중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았다. 그것도 여러 사람과 함께 본 것이 아닌 자기 혼자 본 것으로 특별히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한 밤중에 달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頤聯의 내용인 ‘새의 밥 맛보지도 아니했는데’를 통하여 시간적으로 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는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경련의 ‘달은 기운은 붉어져 처음 가리고, 높은 바퀴는 희어 점점 차지네.’와 같은 묘사를 통하여 하

15) 『頤齋續稿』 卷11, 「漫錄」中, 蓋凡物象 近視則大 遠視則小 故西洋人測天者 亦云星宿大於日月者 星宿雖大 而高且遠 故小 日月雖小 而卑且近故大 此的確語也.

16) 『頤齋遺稿』 卷1, 「觀星」二首, 自然光氣轉虛空, 何事昏中更曉中. 我欲輕飛去親見, 玉霄高處俯剛風.

17) 『頤齋續稿』 卷2, 「上元夜獨觀月出二首」

18)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23쪽 참조.

얀 달이 찬 기운을 받아 촉촉하게 느껴지는 기분까지 드러내었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화자 자신이 만월을 감상한 후 느껴지는 감정을 적었는데, ‘흉년과 풍년 이지러지고 둥근데 있다오.’라는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 결국 달을 단순히 관찰한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해 농사의 풍흉까지 접쳐보려는 뚜렷한 목적이 수반되었음을 알게 한다. 이는 옛 사람들이 하늘의 현상이 땅에 사는 사람살이에 조짐을 준다고 믿었으므로 하늘의 기밀 즉, 天機를 읽기 위해 점성술을 연구·발전시킨 것¹⁹⁾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곧, 위 작품은 작자가 어떤 의도에서 지은 것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달의 이지러지고 둥근 모습을 통하여 한 해의 길흉을 살피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천문이 운행하는 모습을 화자 자신이 관찰하는 과정을 그린 시문이 있는가 하면, 다음 작품은 천문이 운행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평소 천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시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玉杓西轡蒼龍角	북두칠성은 서쪽으로 돌아 창룡의 뿔에 있고
銀浦東回白虎頭	은하수는 동쪽으로 돌아 백호의 머리에 있다오
獨有五星天極位	오직 오성만이 천극의 위치에 있어
不隨經緯任旋周 ²⁰⁾	경위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주기에 맡기도다

기구와 승구는 북두칠성 대 은하수, 서쪽 대 동쪽, 창룡의 뿔 대 백호의 머리 등을 대립적 구도로 놓아 의미의 대칭을 이루었다. 북두칠성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별자리인데,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머니에게

명줄을 받아 태어나고, 삶의 길흉화복은 모두 북두칠성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으며, 죽으면 북두칠성을 그려 넣은 칠성판을 지고 저승길에 가야만 염라대왕이 받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옛 동양 사람은 세계의 다른 문명권과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을 하느님이 타는 수레, 네모난 뿔, 긴 자루가 달린 국자 등으로 여겼다.²¹⁾ 이러한 북두칠성이 위 시에서는 서쪽을 돌아 창룡의 뿔에 있다고 하였다. 옛 사람들은 북두칠성의 자루를 계절을 알려주는 거대한 천문 시계로 생각하였다. 봄에 해가 지면 북두칠성의 자루는 동쪽을 가리킨다. 여름에 해가 지고 나면 남쪽을 가리키며, 가을에는 서쪽을, 겨울에는 북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향한 방향을 보고 철을 따지기도 하였다.²²⁾ 그리고 청룡과 동격의 의미인 창룡은 중국 천문학에서 二十八宿 가운데 동쪽의 일곱 별자리를 이르는 말로 角, 亢, 氐, 房, 心, 尾, 箕를 통틀어 이른다. 옛 사람들이 청룡, 주작, 백호, 현무, 황룡 등과 같은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각각 동·남·서·북·중앙 등을 지키는다면, 청룡은 봄, 주작은 여름, 백호는 가을, 현무는 겨울 등의 계절을 맡는다고 굳게 믿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곧, 북두칠성이 서쪽을 돌아 동쪽을 상징하는 창룡의 뿔에 있다고 함은 북두칠성 자루는 서쪽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계절로 보자면, 가을임을 알 수 있다.²³⁾ 마찬가지로 승구도 은하수를 들어 천문이 운행하는 모습을 動的으로 그렸다. 전구에서는 五星을 들었는데, 고대 중국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歲星·熒惑·太白·辰星·鎮星의 다섯 개 행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동·남·서·북·중앙 등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서양식으로는 목성·화

19) 안상현, 전계서, 19쪽 참조.

20) 『頤齋遺稿』 卷1, 「夜坐三絶」 중 첫 번째 작품.

21) 안상현, 전계서, 87~88쪽 참조.

22) 안상현, 전계서, 90쪽.

23) 실제로 『頤齋遺稿』 卷1, 「夜坐三絶」 중 세 번째 작품을 보면, ‘風落江南九月天, 葉聲和雨錢殘年. 仙雲未到空相憶, 秋影應涵白鳥邊.’ 등과 같이 읊었는데,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성·금성·수성·토성 등을 가리킨다. 즉, 다른 별들은 계절에 따라 그 위치를 달리 하기도 하지만, 하늘 끝에 있는 오성만은 네 계절 동안 불변의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 작품도 천문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읊은 것으로 화자의 서정적인 면은 거의 배제된 상태이다.

一天星斗爛成行	하늘의 별빛 찬란히 줄을 이루고
瓔珞珠旒幾點光	구슬 목도리 구슬 빗처럼 몇 점이 빛나네
督有紫微宮北極	자미궁 북극 가운데에 있어
不明不暗運陰陽 ²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가운데 음양이 운행하네

기구와 승구에서는 하늘에 별이 떠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구슬 목도리와 구슬 빛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전구에서는 紫微宮을 일컫고 있는데, 옛 사람들은 북극성을 옥황상제라고 생각하여 그 주변을 임금의 사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자미궁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미궁의 담을 紫微垣이라고 불렀는데, 자미원에 있는 별은 궁궐을 지키는 장군과 신하라고 생각하였다.²⁵⁾ 따라서 전구의 북극은 북극성을 가리키며, 자미궁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 궁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옛 사람들은 하늘이 회전하는 중심, 즉 천구의 북극을 北辰이라고 하여 높여 불렀는데, 일찍이 공자는 『論語』 「爲政」 편에서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신이 그 자리에 있어 못 별이 주위를 도는 것과 같다.’²⁶⁾라고 하였다. 북극성을 옥황상제로 생각하여 그 주변의 별들이 이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위시의 마지막 절구에서 명암의 中正을 지켜 음양이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북극성의 옥황상제가 있어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공자가 언급한 의미와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

3.2 천문 現象에 대한 인식과 대응

고래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자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가령, 어떤 異象의 자연 징후가 나타나면, 인간의 잘못을 판단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더군다나 하늘을 곧, 왕으로 여겨온 동양인에게 있어서 천문의 이상 징후는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였다. 천문 이상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일식, 월식, 천둥, 번개, 벼락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일·월식에 대한 인식은 각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에 대한 생각이 특별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역대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다.

황윤석도 천문의 이상 현상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일·월식에 대해서는 장편의 시문까지 남길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내보였다. 시문에는 일·월식이 일어난 시기와 해와 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며, 사람들의 그에 대한 반응과 이해는 어떠한고, 그리고 작자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는가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음은 24韻 48行으로 이루어진 일식시의 처음 부분이다.

今王廿二載	지금 왕 22년
暮春丁卯朔	정묘년 3월 초하루에
跋鳥始登天	삼족오 비로소 하늘을 올라
轉到曾桑域	일찍이 동방에 굴러 이르렀네
陽精照萬國	양의 정기 온갖 나라 비추어
幽突燭餘輝	그윽한 촛불 나중까지 남아 빛나네

24) 『頤齋遺稿』 卷1, 「夜坐三絕」 중 두 번째 작품.

25) 안상현, 전계서, 41쪽 참조.

26) 『論語』 「爲政」 篇,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陰旒忽霧日 음이 돌아 갑자기 날이 흐려지니
 冷氣溷書幃 냉기가 서재를 위협하네
 晴窓黏黃暈 맑은 창에 누런 달무리 붙어
 夜色詰白晝²⁷⁾ 밤빛이 대낮을 공격하네

먼저 일식이 일어난 때를 정확히 적고서, 태양 광채가 비추는 모습과 일식이 일어나는 과정 등을 간단하게나마 적었다. 시문에 의하면, 일식이 일어난 때는 ‘지금 왕 22년 정묘년 3월 초하루’이다. 이때의 왕은 물론 영조를 가리킨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영조 22년 3월 1일조를 보면, ‘일식이 있었다’라는 간단한 기록이 엿보이는데, 위 시문에서 말하는 일식의 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또한 작자의 나이 19세 쯤으로 실제로 한창 천문을 관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일식 현상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시문으로까지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다. 3~6행까지는 태양 광채가 비추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踐烏’는 태양 속에 있다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인 ‘三足烏’를 말한다. 그만큼 태양을 신성시하여 동방에까지 양의 정기가 두루 퍼졌음을 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음기운이 돌아 날이 흐려지고, 냉기가 서리며, 밤빛이 대낮을 공격했다고 하여 드디어 일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적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일식은 지구상에서 볼 때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일식 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가서 태양빛에 의해서 생기는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생기고, 이 그림자 안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져 보이는 것이다. 즉, 10행의 ‘밤빛이 대낮을 공격하네’라는 내용이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일식 현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3~22행까지의 내용으로 일식이 있고 난 후부터 일식이 끝

날 때까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我起出中門 나 일어나 중문에 나아가
 仰瞻團團郭 둥글둥글한 둘레를 바라보네
 重霧鏘明彩 심한 안개 밝은 빛 깎으니
 謝謝如日曠 시드는 것 눈을 멀게 하는 듯하네
 圓輪漸銷鑠 둥근 바퀴 점점 녹아들어
 庶至食之既 거의 먹혀 다함에 이르렀네
 俄狀色重吐 갑자기 빛 다시 토해내니
 有似月生朏 초생달이 생기는 듯하네
 兒童竟相賀 아이들이 마침내 위로하며
 指說天狗去²⁸⁾ 가리켜 천구성이 물러감을 말하네

보통 사람에게도 일식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평소 천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작자에게 일식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한 것인데, 위 시의 내용은 일식이 일어난 후 작자가 태양이 변화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寫實的으로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15~18행까지의 내용이 일식 후의 태양의 변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심한 안개가 밝은 빛을 깎아 눈을 멀게 하는 듯하다라고 한 것이나 둥근 바퀴가 점점 녹아들어 거의 먹힘에 이르렀다고 하여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모습을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식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갑자기 빛 다시 토해낸다’라고 하여 급박하게 벌어진 천문 현상을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22행에서 언급한 天狗星은 妖星의 하나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법을 방해하는 신통력이 있다는 괴물을 지칭하는데, 일식 현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27) 『頤齋遺稿』 卷1, 「日食詩」

28) 『頤齋遺稿』 卷1, 「日食詩」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일식을 천문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늘의 괴물이 신통력을 부려 일어난 駭怪한 현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다음은 25~34행까지의 내용으로 朱子의 논리를 근거로 일식의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작자의 일식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嘗聞考亭老	일찍이 주자 늙은이에게 들으니
妙透陰陽化	묘하게 음양의 변화 통하여
青編有遺訓	역사서에 남은 가르침 있으니
此理言無訝	그 이치 의심이 없다고 말하리라
天腰帶二道	하늘의 허리 두 도를 둘러
黃白交十字	황백은 십자를 사귀어
日月從此行	해와 달 이를 좇아가서
會時相撞值	만날 때 서로 부딪쳐 만났다가
陰精既以掩	음의 정기가 이윽고 덮어버리면
太陽爰失耀 ²⁹⁾	태양은 이에 빛남을 잃어버리네

우선 25~28행까지는 주자의 음양 변화에 따른 일식에 대한 설명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일식의 원인을 말하고 있다. 즉, 일식은 황백의 십자로 교차점에서 해와 달이 만날 때 서로 부딪쳐 만났다가 음의 정기가 양을 덮어버리면, 양은 그만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논리이다. 주자는 일찍이 그의 저서 『朱子語類』 권2에서 천문의 차고 이지러짐을 음양의 논리로 설명을 자세히 한 바 있는데, 작자는 이러한 주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옛날에는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흉한 변고로 생각하여 임

금이 몸소 흰 옷(소복)을 입고 관리를 이끌고 꿇어앉아서 해나 달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기도했다. 이를 求食禮, 즉 ‘일식이나 월식이라는 하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의식’이라고 하였다.³⁰⁾ 이러한 의식을 하게 된 데에는 일식을 災異로 규정하여 임금의 덕의 여하에 따라 일어났던 일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天人合一 내지 有機體的인 사상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극히 동양적 사고가 바탕이 된 인식으로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서양의 천문학이 유래하여 정착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유효하였다.³¹⁾

다음은 일식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작자의 천인합일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天文諱如見	天文은 보는 듯이 꾸짖고
人事必應照	人事는 반드시 비춤에 응하네
如何聖人世	어찌 성인의 세상에
大明夷朝光	큰 밝음이 아침빛을 잃었나?
赤憤無由救	붉은 머리머로도 막을 방법 없어
鐵鉦徒舂鏗	쇠징으로 한갓 방아만 쪼네
只願天棐上	다만 원하는 것은 하늘의 문설주에 올라
益懋商宗德	상종의 덕을 더욱 힘쓰는 거라네
警懼深兢慄	경계하고 두려워함이 깊어 삼가고 떨어
用答天帝責	하느님의 꾸짖음에 답하여 쓰네
微蹤逸雲闕	멀리 천자의 대궐을 몰래 뒤쫓아
賤懷從誰展	천한 생각 누굴 따라 펼칠까?

30) 안상현, 전계서, 267쪽.

31) 『頤齋續稿』 卷14, 年譜 40歲條에는 李某와 일·월식에 대하여 문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황윤석도 마찬가지로 일·월식을 재이로 규정하고 있다. 李曰 西洋曆法古未會有 而彼其所謂日月交食 自有常度未足爲災者 果何如也 先生答曰 雖有常度 而先儒亦謂天文到此 亦一厄會蓋一常一變互相反復 而日月之貞明者 常也有時 而交食者常之變也 安可謂之非災乎.

29) 『頤齋遺稿』 卷1, 「日食詩」

浩詠十月交 크게 시월지교를 읊조리며
有恨石可轉³²⁾ 돌도 구를 수 있는 한을 두네

천문이 꾸짖으면, 인사는 반드시 그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문은 시작하였는데, 바로 천인합일적인 사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이기에 사람이 그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떤 무엇도 없이 최정으로 한갓 방아만 쪼을 뿐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늘의 문설주, 즉 높은 곳에 올라가 商宗의 덕이 있기를 더욱 힘써본다. 상종은 중국 商나라 中宗의 약칭으로, 곧 상나라의 제9대 임금 太戊를 가리킨다. 상종은 20대에 즉위한 후, 3년간 정사를 재상에 게 맡기고 國風을 살폈으며, 훗날 賢臣 傅悅을 재야에서 얻어 정치를 행하여 천하의 환호를 받은 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린 임금의 대명사로 널리 쓰였는데, 작자는 이러한 상종을 들어 그의 덕을 본받을 것을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원을 임금이 있는 궁궐에 직접 전할 수 없기에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詩經』 「小雅」 ‘十月之交’를 읊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시문을 끝맺음하였다. 『시경』의 ‘시월지교’는 毛詩序에 이르기를 ‘大夫가 幽王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는데, 일식 현상을 겪고 난 후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왕은 주나라의 제12대 왕으로 총희 褒似를 웃기기 위하여 가끔 거짓으로 烽火를 올려 제후들을 모았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였다. ‘시월지교’는 바로 이러한 유왕의 잘못된 정치를 풍자한 것으로 모시서에서는 본 것이다. 즉, 작자가 ‘시월지교’를 읊조리겠다고 한 의미는 ‘시월지교’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일치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왕이 그릇된 정치를 하여 결국 일식과 같은 재앙을 만났다고

인식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천문 현상을 억지스럽게도 정치와 연관지었다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사고의 틀을 고스란히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작자의 時局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소홀히 넘길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천문 현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 논리는 월식을 본 후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 「月蝕五十韻」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서양식 천문학에 의하면, 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하여 지구의 그림자에 월면이 가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동양에서는 일식에 비해 월식을 경시하는 풍조가 강하였는데, 해는 왕을, 달은 왕비를 상징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인식상 그러했던 것이고, 월식 현상을 직접 대하고 나면, 상황은 달랐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황윤석도 월식이 일어났을 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마을 늙은이들 놀라서 탄식한 이 많고, 거리의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자주하네. (중략) 사물의 형상 푸른 것과 흰 것 사귀었으니, 땅은 바야흐로 원수지간인 인 듯 어지럽네.’³³⁾라고 읊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월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앞의 일식시과 마찬가지로 천인합일 내지 정치적인 논리와 연관지어 읊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월식오십운」의 59~70행으로 월식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추적해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략)

於焉或遭食	벌써 혹 먹힘 만났을까?
推究亦由人	이치 미루는 것 또한 사람에서 말미암네
此理元非贖	이 이치 원래 바르지 않은 것 아니니

32) 『頤齋遺稿』 卷1, 「日食詩」

33) 『頤齋遺稿』 卷1, 「月蝕五十韻」, 里老驚嗟衆 街兒指示頻 (中略) 物象交蒼素 地方亂 越秦.

彼微必有因	은미함도 반드시 원인이 있으리다
在高關國事	높이 있을 때는 나랏일 간여하고
取類即王臣	동류를 취하니 곧 왕 신하이네
長姊尊名號	만누이로 이름과 호 높이고
元妃絕妾嬪	왕의 정실로 첩빈과 단절하네
異王表勳烈	다른 나라 왕으로서 큰 공 드러내고
天使主觀巡	하느님의 사자로 자기 맘대로 도네
降雨由從畢	비 내림은 필성을 좃음으로 말미암고
司刑在愛民 ³⁴⁾	형 맡는 것 백성 사랑하는 데 있다네

(생략)

먼저 앞의 4행에서는 월식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단언하면서 뒤의 63~68행까지 월식이 일어난 원인으로서 몇 가지 일들을 나열하였다. 그런데, 나열한 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궁궐의 일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지 않아 자세한 내막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신하와 친인척 등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은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서 ‘愛民’을 강조하였는데, 결국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아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인식이 은연 중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앞의 일식 시에서 보았던 의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결국 천문 현상과 인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시적 含有의 의미와 한계

황윤석의 학문 체계는 복잡하고도 다양하여 하나로 엮어내기란 실로

쉽지 않다. 전통 유학자의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단순히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접하지 않은 학문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황윤석 스스로도 ‘雜學’으로 인정한 ‘周易·洪範·律曆·書·數’의 이론과 산천·군현·풍속의 기록, 음양·귀신·心性情意的 변증’에 이르기까지³⁵⁾ 모든 학문 분야를 총 망라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볼 때, 박학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히 알 수 있겠다. 비록 역대 학자들의 학설을 모아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일생동안 정력을 기울였다’고³⁶⁾ 述懷한 『理數新編』이 나오게 배경도 학문 영역을 결코 좁게 잡지 않은 데에서 출발한 것이니 조선조 여타의 유학자들에 비할 때 다른 면모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천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관찰 등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각인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황윤석은 왜 천문을 실질적으로 관찰했던 것일까? 이는 정확한 역법의 推算을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⁷⁾ 역법이란 천체의 주기적인 운동을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천체의 주기적 현상에 따라 시간 단위를 정해 나가는 체계를 曆이라 하고 역을 편찬하는 원리를 역법이라고 한다. 서양 천문학에서는 천체운동론이 역법과 일단 분리되어 발전하였으나 동양의 사정은 달랐다. 동양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주구조론이 아니라 천문·역법이었던 것이다. 즉, 천체의 규칙적인 운동과 이상변화에 대한 관측과 기록을 통하여 일·월식 등의 천문현상에 대한 예측이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³⁸⁾ 이

34) 『頤齋遺稿』 卷1, 「月蝕五十韻」

35) 『頤齋遺稿』 卷6, 「訓洪克之樂眞序」, 竊不自揣妄擬一究天人之際 其於易範律曆書數之說山川郡縣風俗之志 以至陰陽神鬼心性情意之辨 謂未始留念 則不可也.

36) 『頤齋遺稿』 卷6, 「理數新編序」, 理數新編總若干門目 是余一生精力之所在也.

37)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156쪽 참조.

38) 鄭誠禧, 「頤齋 黃胤錫의 天文·曆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92, 51쪽 참조.

러한 역법은 또한 동양의 농경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는데, 위정자는 천문 현상의 恒常性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³⁹⁾ 따라서 나라에서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역법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황윤석은 사실 나라에서 공인받은 역법가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2세 때 영조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영조가 大統曆과 時憲歷에 대하여 묻자 자세히 답한 일이 있었는데,⁴⁰⁾ 그가 어느 정도 역법에 정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황윤석의 천문 관찰은 역법을 추산하기 위한 것이었고, 역법 추산은 결국 생활 속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함이라고 할 때 그의 학문적 실용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에 분명하다.

황윤석은 또한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천문을 관찰한 후 시문에 그 내용을 함유하여 보여주었는데, 천문이 운행하는 모습을 단순히 기록한 경우와 일·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을 담은 경우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 천문 관련 글을 남긴 것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문까지 창작했다고 함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은 분명 아니기에 그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짚어볼 문제는 왜? 시문이라는 양식을 빌어 그 내용을 전달했을 것인가이다. 시는 상상력의 산물로서 흔히 이성과 대비된다. 또한 산문이 '축약의 원리'에 의한다면, 시는 '압축의 원리'에 의한 암시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리하여 시 형식이 산문보다 조직이 긴

밀한 것은 세부의 보다 첨예한 선택성, 암시성의 강조, 세부 배열의 중요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⁴¹⁾ 시의 기본적인 속성과 요건이 이렇다고 할 때, 앞 장에서 살펴본 황윤석의 천문 관련 시문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건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즉, 황윤석은 천문 관련 시문을 창작함에 있어서 시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선시했다기보다는 의미의 전달을 먼저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천문 관련 시문들의 대부분이 서정을 담보한 상태에서 대체로 내용 위주로 엮어져 의미 전달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월식과 관련된 시문들은 그러한 천문 현상이 일어난 때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일어나는 원인 등을 적고난 후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뿐이지 시적 서정적인 측면은 거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 단지 천문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칠 뿐 교훈적이지도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은 같은 유학자적 입장에서 이념성을 드러내려했던 다른 문인들과 대비되는 색다른 모습으로 압축성이 강한 운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의 학문적 식견을 강하게 보여주려고 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문학과 예술성은 담보한 상태이지만, 내용을 통하여 학문적 식견을 보여줌으로서 목적성만큼은 최대한 획득했다고 하겠다. 이는 황윤석 자신이 마치 천문 관찰을 통하여 역법을 추산해냄으로서 실용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시문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또 다른 실용성을 획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천문 관련 시문을 시적으로 함유한 의미를 새겨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문 가운데에 나타나는 의식의 한계이다. 특히, 천문 현상을 읊은 시문 가운데에 작자는

39) 李炯性, 『頤齋 黃胤錫의 數에 기초한 實學思想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 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162쪽 참조.

40) 『頤齋續稿』 卷14, 年譜 42歲條, 上曰 然乎 因問大統曆 何以改爲時憲曆 先生對曰 萬曆末年 大統曆法 漸疎 故崇禎年中詔徐光啓李天經與西洋人湯若望等 改修曆法 曰崇禎新法曆書 蓋將以此因大統舊名行之天下 而不幸有甲申之變 遂爲清人所有 而名以時憲 其名雖異其法則一耳.

41) 金堉五, 『詩論』, 三知院, 1993, 37쪽 참조.

의식을 담고 있는데, 바로 明本源主義이다. 명본원주의란 큰 줄기가 서면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인데, 작자는 시문을 통하여 일·월식이라는 자연 현상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명본원주의에 입각한 채로 임금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유학자들이 지녀온 의식의 한계이기도 한데, 황윤석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서양과학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식만큼은 전통 유학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맺음말

본 논고는 황윤석이 천문·역법에 주력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시문을 연구하였다. 특히, 천문을 관찰한 후 지었음 것으로 생각되는 시문들을 중심으로 그 시적 함유를 살피고, 시적 함유의 의미와 의식의 한계점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황윤석의 학문은 가학과 김원행에게서 받은 수학, 그리고 30대 중반 쯤부터 이루어진 문인들과의 학문에 대한 논의와 연찬 등에서 힘입은 바 커 학문의 모든 면에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의 박학성과 학문적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박학성과 열정은 천문과 역법 등 보통의 유학자들이 잡학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는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관찰과 관측 등과 같은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황윤석은 또한 천문을 관찰한 후 이를 시문의 형태로 옮겼는데, 천문 운행의 단편적인 기록을 담은 것과 일·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을 시적으로 함유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천문 운행의 단편적인 기록을 담은 작품으로는 『이재유고』의 「관성」 두 수, 「야좌」 세 수, 『이재속고』의 「상원야독관월출」 두 수 등이 있었다. 이들 작품은 양적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 속에 천문 지식을 담고 있어 황윤석의 천문에 대한 학문적 수준을 알게 한다. 천문 현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담은 작품으로는 『이재유고』의 「일식시」와 「월식오십운」 등의 시가 있는데, 이들 두 시는 모두 장편 고체시의 형태를 띠며, 일·월식 등의 현상을 관찰한 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시를 통해서 보자면, 일·월식을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재이로 규정하는가 하면, 천인합일의 사고를 바탕으로 나라의 왕과 관련지어 결국 천문 현상과 인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시는 상상력의 산물로서 흔히 이성과 대비된다고 이른다. 시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다고 할 때, 황윤석의 천문 관련 시문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건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황윤석의 천문 관련 시문들의 대부분이 서정을 담보한 상태에서 대체로 내용 위주로 엮어져 의미 전달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문학적성과 예술성은 담보한 상태이지만, 내용을 통하여 학문적 식견을 보여줌으로서 목적성만큼은 최대한 획득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큰 줄기가 서면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의 명본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의식의 한계로 규정하였다.

■ 참고문헌

『論語』

『頤齋亂藁』
『頤齋續稿』
『頤齋遺稿』

金垞五, 『詩論』, 三知院, 1993.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李垞丘, 「金元行的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 활동」, 『진단학보』 88
집, 진단학회, 1999.

李炯性, 「頤齋 黃胤錫의 ‘數’에 기초한 實學思想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
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鄭誠嬉, 「頤齋 黃胤錫의 天文·曆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92.

_____,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崔三龍, 「頤齋 黃胤錫의 문학연구」, 『頤齋 黃胤錫』, 민음사, 1994.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Observation of Astronomical Calendar by Yijae (頤齋) Hwang Yunsok(黃胤錫) and Poetic Inclusion

Park, Myoung-hui

This study focuses on examination of astronomical calendar by Yijae Hwang Yunsok and poems involved in it. In particular, it speculates its poetic inclusion, centering on poems that are thought to be created after he observed astronomical calendar and identifies meaning of poetic inclusion and limits of consciousness.

Hwang Yunsok was interested in astronomical calendar that was considered as miscellaneous learning based on his academic erudition and enthusiasm. In addition to his interest, he even observed it.

Hwang Yunsok wrote poems after he observed astronomical calendar. He recorded astronomical phenomena such as solar and lunar eclipse and described them and his recognition on them in his poems. His poems is not much in quantity, but they showed his academic level in astronomical calendar, and confirmed that astronomical phenomena have inseparable relations with man based on the idea of unity between God and man.

It is not certain whether most of his poems on astronomical

poetry have artistic and literary values, but they showed his academic knowledge through the contents and obtained its purpose in maximum.

Key word : Yijae Hwang Yunsok, astronomical calendar, solar and lunar eclipse, astronomical phenomena, stronomical poetry.